

2022

나브루즈(Nawruz) 축제

일시 2022. 3. 21.(월) 11:00~16:00

장소 동천관 401호 및 바우어관 일원



주최: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후원:  경상북도
GYEONGBUK-DO

KOREA  FOUNDATI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the Republic of Korea

초대합니다

3월 21일은 봄날이 시작되는 '춘분'입니다.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음이 시작되는 날, 잠들어 있던 대지를 깨우고 만물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통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시작됨을 기뻐하며 춘분날 축제를 벌이곤 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나브루즈'라는 이름으로 이날을 기념해왔습니다. '나브루즈'는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은 위대한 잠시드 왕이 인간에게 가뭄과 기근을 보낸 악신을 무찌르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말랐던 풀이 초록빛으로 변하여 세상은 다시 푸르름으로 가득 찼고, 이를 기뻐한 사람들이 "나브루즈!"라고 외치면서 축제를 벌여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즐기며 함께 이날을 즐겼다고 합니다.

실크로드중앙아시아 연구원이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납니다. 영화제와 함께 특강을 마련하고 축제를 벌여 여러분들을 모시오니 다른 문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김중순 드림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장

일정 소개

축제	전시체험부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터키	시간: 3월 21일(월) 11:00~16:00 장소: 바우어관 앞
	음식 나누기	
	예술공연 (우즈베키스탄 이주민 민속예술단 초청)	
특강	"누르의 작품 세계에서 나보이의 영향" 강사: Akmal Nuridinov (우즈베키스탄 예술아카데미 원장)	시간: 3월 21일(월) 14:00~16:00 장소: 동천관 국제세미나실(401호)
영화제	갓 구운 빵 Hot Bread 우미드 함다모프/ 2018년/ 87분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 온라인: http://www.censcakmu.org 시간: 3월 21일(월)~25일(금)
	텡기즈 Tengiz 만수르 압두칼리코프/ 2020년/ 83분	
	무채색 꿈 Colorless Dreams 아옴 샤코비티노프/ 2020년/ 75분	
	파리다의 노래 Farida's 2000 Songs 올킨 투이치예브/ 2020년/ 110분	
	특강: 영화로 보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홍상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중앙아시아의 새해 나브루즈(Nawruz)

봄의 도래는 인류가 존재해 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구상의 제 민족이 봄을 다양하게 맞이해오고 있지만 대부분 자연의 소생을 기뻐하고 인생의 승리와 풍년 등을 기원한다.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의 역사와 전통이 반영된 축(祝)과 제(祭)를 포괄하는 문화양식을 축제라고 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나브루즈(Nowruz; Navruz)도 이러한 축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이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희생하는 일종의 봄맞이 또는 신년맞이 페스티벌인 셈이다.



원래 나브루즈는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전통과 함께 기원하여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7세기 중반 이후 중앙아시아에 이슬람교가 전해지고 개종하게 되면서 나브루즈가 가지고 있던 조로아스터교의 요소들은 약화되거나 전통이나 민속 등의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그들만의 특징과 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 나름의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벽화 남벽에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나브루즈 종교예식 그림이 남아있다. 이슬람이라는 큰 역사적 장애물을 건너면서도 이처럼 나브루즈가 살아남은 것은 나브루즈의 강인한 생명력과 더불어 민속화의 과정을 거쳐 그들만의 전통문화를 구축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학적 전통에서 축제는 주로 광범위한 종교현상의 하나이거나 상징적 연행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은 민속이나 관습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많지만, 고대 또는 전통 사회에서 축제는 종교를 중요한 토대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종교는 성스럽고 궁극적인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 통합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아시아의 봄맞이 신년축제는 발생지 페르시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라즈기’(Lazgi)



‘라즈기’ 춤은 북부 우즈베키스탄과 카라칼팍스탄, 북부 투르크메니스탄과 남부 카자흐스탄의 일부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 위에 세워졌던 고대 호레즘 왕국에서 유래했다. 그렇기에 호레즘 춤이라고도 불린다.

고대어로 ‘흔들다’는 뜻을 지닌 라즈기 춤은 “누구나 출수 있으나, 그 누구도 호레즘인들처럼은 출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호레즘 지역의 춤이다.

이 춤의 유래에 관한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 춤을 더욱 신비롭게 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전설을 소개하자면, 인간의 몸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 신이 활기찬 음악 소리를 만들었고, 그 소리에 매료된 영혼이 점차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인간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춤이 바로 라즈기 춤인데, 처음에는 동작이 느리지만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격렬해지면서 온 몸으로 생명력을 발산하는 아주 열정적인 춤이다. 손가락 튕기기, 손가락 흔들기, 뛰기 등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풍부한 것이 이 춤의 특징이다. 무용수는 느린 리듬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손가락과 손을, 이어서 팔, 어깨, 목, 몸통, 다리를 차례로 움직이고, 나중에는 전신을 움직인다. 회전을 하거나 위로 또는 옆으로 뛰는 포즈, 몸체를 굽히는 포즈를 취하는 등 춤이 점점 격렬해진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춤의 리듬은 빨라져 점점 더 큰 열정과 에너지로 채워진다. 그리고 순수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황홀한 느낌으로 끝이 난다. ‘라즈기’춤은 호레즘 지역에 발생했던 수많은 전쟁과 사회 격변,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수천년에 걸쳐 전승되고 있으며, 2019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민속 공연단 “TAMANNO”

2015년에 창설하여 “우즈벡 여인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올해부터 “TAMANNO”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에 창원 다문화축제 “맘프”, 2016년 전라도 영광군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 춤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 KBS “아침마당”, “전국을 달린다” 등 다수의 TV 방송에 출연했고, 부산 V-Festival, 다문화 어울림 마당 축제, 2020년 문화다양성 online FESTIVAL “WHO ARE YOU”,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주최 우즈베키스탄 독립 30주년 행사 등 여러 행사에서 공연했다.

■ 여성들의 음식 수말락 (Sumalak)

나브루즈 축제의 상징 중 하나는 보리 혹은 밀 싹으로 만든 수말락이다. 싹이 난 밀을 갈아물에 잘 풀어준 후 약한 불에 24시간 정도 끓인다. 늘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줘야 해서 보통 이웃과 함께 모여서 요리를 한다. 파란 새싹이 움트는 것은 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연의 생명이다. 이때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긴 시간의 노동을 즐겁게 보낸다. 수말락은 단맛이 나는 죽처럼 생겼는데, 그대로 퍼먹기도 하고, 빵에 찍어서 먹기도 한다.



■ 남성들의 음식 플로프 (Plov)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플로프 없이는 어떤 잔치도 열지 않는다. 결혼식이나 생일, 장례식, 명절 등 특별한 날에는 항상 플로프를 만들어 먹는다. 플로프는 알렉산더 대왕 혹은 티무르 시대로부터 전해졌다고 한다. 전쟁 음식으로 병사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영양가가 높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터처럼 '아외에서', '큰술에', '남자갸'가 요리한 플로프를 최상으로 친다.



특강: 누르의 작품 세계에서 나보이의 영향



아크말 누리디노프 (Akmal Nuridinov)

타슈켄트 국립 연극예술대학교 졸업하고 우즈베키스탄 예술 아카데미 정회원, 우즈베키스탄 문화 예술 포럼 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예술아카데미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5년에 우즈베키스탄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고, 2013년에는 러시아 예술 아카데미의 명예 학자로 선출되었다.

위대한 나보이의 창조적 천재성을 중심으로 그의 곁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불후의 작품들을 창조해냈던 뛰어난 철학자, 시인, 화가, 서예가, 그리고 장식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 세기 동안 학자와 작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지성을 자극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세계 문화예술사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학파와 사조를 창조했으며, 그들을 뒤따르는 계승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초에, 우리는 알리셰르 나보이와 그의 시대가 남긴 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크 어문학의 창시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의 작품들 속에서 우주, 조화, 정신, 아름다움과 같은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알리셰르 나보이의 작품들에 자주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레일리와 메즈눈>, 그리고 <리손 우트-타이이르>와 같은 작품들은 제가 연작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 진정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수피파 서사시인 <리손 우트-타이이르>는 <새의 언어>(2005~2006), <새의 언어>(2006), <리손 우트-타이이르>(2013~2014)와 같은 제 작품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작품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바로 캔버스의 표면 전체를 무질서한 자갈 무더기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야만 이 자갈 무더기가 새들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지력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들의 윤곽을 통하여 수많은 새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작품은 새라는 단어가 가지는 익숙한 의미로 구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구상성은 익숙하지 않은 현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뒤집힌 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황금빛 꽃잎들로 표현된 신비로운 발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이렇듯 다른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형상은 삼각형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승하는 황금빛 흐름의 원천 곁에 사과를 그려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는 인지의 결실을 뜻합니다. 이 상징은 새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걸음 더 발전시켜 줍니다.

<리손 우트-타이이르>는 이전의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조형 언어적 요소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뒤집힌 삼각형 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안쪽 선을 따라 '자갈 무더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크기의 부지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새들이 조밀한 물질의 관성을 극복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림의 중앙에서 돌로 된 족쇄를 벗어나고 있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자 합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육체가 없는 거대한 인간의 몸이 바로 하늘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새의 언어는 바로 신의 언어입니다. 저는 새들을 주제로, 즉 신의 언어를 주제로 30점 이상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 그림들에서 새의 역할이 가지는 비중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납작뺨들>(2005)이라는 작품에서 새들의 형상은 너무나도 도식화되어있기에 장식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페르가나의 마돈나>(2014)라는 작품에서는 새들과 그 외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장식이 임신한 여성의 머리 위 후광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돈나의 발쪽에는 '날아오르는' 삼각형을 형성하는 세 마리의 새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 <염원의 비상>(2012)과 <메추라기들이 노래하네>(2009)에서는 새라는 주제와 꿈이라는 주제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노래하네>에는 단 한마리의 새도 나오지 않고, 스카프로 덮어놓은 새장들만이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작품에서 새의 형상이 하는 역할은 '침묵'입니다. 새들은 그림 속 인물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신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작품의 제목이 <메추라기들이 노래하네>이니, 적어도 무언의 새들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스카프들 아래로 황금빛이 도는 새장들의 밑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황금 새장'이라는 은유가 예술적 핵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염원의 비상>에 등장하는 인물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세 마리의 새가 있는데, 이 중 두 마리는 공중을 날고 있고, 한 마리는 바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청년의 머리가 바퀴의 중심부를 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그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바퀴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제 작품세계에서 새와 꿈이라는 주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주제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꿈을 꾸고 있거나 명상 중인 상태는 꿈의 '이미지'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제 작품들 속 인물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꿈>(2000)이라는 작품입니다. 관객을 등지고 서 있는 소년이 먼 곳을 바라봅니다. 대지의 표면과 하늘은 자갈 무더기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그 가운데로 지평선이 지나가는 밝은 선이 있으며, 이 지평선은 물고기들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꿈이라는 주제는 실존적 주인공이라는 주제와 통합됩니다. 소년은 깨어있는 상태이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꿈속으로 '잠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레일리와 메즈눈>의 형상도 제 그림들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에는 영원한 봄이 있으니>(2001), <고난의 길>(2004), <메즈눈>(2004), 3부작 <카이스>(2006~2007), <사랑의 고통속에서>(2007)와 같은 그림 속에서 저는 제 자신만의 세계를, 즉 제 생각과 감정들이 녹아있는 정신적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안에서 메즈눈과 레일리는 사랑에 빠진 상태로, 동시에 고독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제 작품들 속에서 만남과 회상, 꿈과 회상은 하나로 얽혀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어떤 주인공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행위들이 발생하며 자신만의 시공간적 계산이 존재하는 일종의 세계질서입니다. 전 작품들을 통해 제가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은 그림의 낭만주의적 충만함과 모든 마음의 번뇌를 흡수하는 감정적, 색채적 인상의 구현이었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동양 문화를 연구했던 것이 제 작품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연상의 범주를 무한대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상징적 형상들을 탐색하는 일에 저는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작업들 중 하나가 <사랑의 제단>입니다. 그림의 주인공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공동의 미래보다 더 큰 어떤 것으로,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지극히 성스럽고 정신적인 유대감입니다. 그림의 중앙에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묘사되어 있으며, 이들의 진실한, 불꽃같은 사랑과 열정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젊은 남자는 양 팔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해 신께 감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두 사람의 몸은 마치 이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구름으로 직조된 것처럼 하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둘을 제단의

형태를 지닌 석류나무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의 형상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코란에서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인 ‘알-잔 나트’라는 용어 자체도 ‘정원들 중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짙은 그늘을 드리우는 풍성한 열매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그 중에 석류나무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사랑에 빠진 커플의 서로에 대한 지조와 화합을 향한 영원한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태의 변화 과정과 색상 계조의 교체는 그림에 고유한 철학적 함축을 부여합니다. 이 작품은 자연이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보편적인 사상과 사랑, 정결, 아이들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종교를 믿습니다. 이 말은 제 개인전들 중 하나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사랑, 선, 지혜, 조화, 진리, 이것이 바로 저의 정신적 세계를 규정하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바로 제 정신의 등대인 알리셰르 나보이가 남긴 말이며, 저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도 그가 등대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역: 박선진 교수, 러시아 중앙아시아학과)



영원의 비상



내 안에는



메즈눈



탐스런 석류가 있는 정원

알리셰르 나보이(Alisher Navoi)는 누구인가?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적 구성은 주로 투르크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8세기 이후 이슬람화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적 정체성에 크게 혼돈이 일어났다. 이슬람 문화는 투르크어가 아닌 아랍어로 대표되고, 코란을 읽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아랍어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어 역시 아랍어 못지않게 문학이나 행정 언어로 기능해 왔다. 결국 투르크 언어는 민중들의 생활 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치 우리의 언어가 엄연히 있음에도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알리셰르 나보이(1441~1501)다. 그는 30년 동안 30개의 작품을 차카타이(Chagatai) 투르크어로 집필했다. 하위언어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깨고 투르크계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활 언어로 작품을 적은 것이다. 투르크어가 그 한계를 넘어 당당히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민족이 모국어로 문학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보이의 위상은 우리의 세종대왕(1418~1450)과, 그리고 나보이가 사망한 해에 태어난 퇴계 이황(1501~1570)과 비견된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우즈베키스탄과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우즈베키스탄 온라인 필름 페스티벌

Uzbekhistan Online Film Festival Online

3월 21일(월)~25일(금) / <http://www.censcakmu.org>

Special thanks for the sponsorship of the Uzbekistan Embassy in Korea and Korea Foundation.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영화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1924년 중앙아시아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가 우즈베키스탄에 세워져 매우 체계적인 영화제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전통의 힘은 9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그것은 영화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정치 때문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영화를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달 수단으로 간주하고 검열을 강화하고 배급을 장악했다. 더 나아가 외부에 대한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태도는 상황을 더욱 나쁘게 몰아갔다.

우즈베키스탄 예술가들은 소비에트에서 기인한 억압과 고통의 기억을 스크린에 불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전통과 기원을 상징과 은유에 실어나르며, 중앙아시아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에트의 전통에서 배우고 소비에트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현대 우즈베키스탄 영화의 정체성을 민족주의로 귀결시킨다면 이는 그들의 다양성과 예술적 풍요로움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 제공하는 네 편의 영화를 통해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파리다의 노래 Farida's 2000 Songs (올킨 투이치예브/ 2020년/ 1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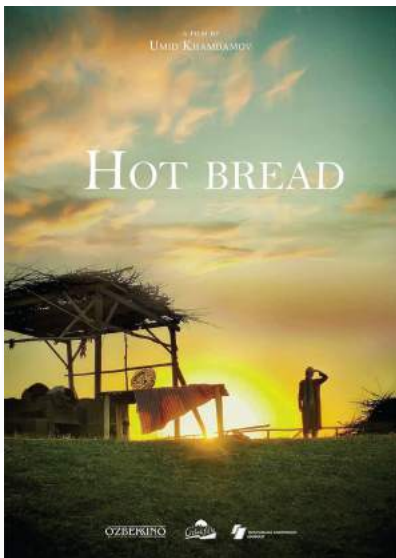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산골. 전쟁이 한창이지만, 주인공 카밀은 오직 자신의 뒤를 이을 자식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미 네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다를 다섯 번째 아내로 맞이한다. 하지만 화목하게 보이던 이들의 관계는 파리다의 임신과 함께 깨어지게 된다. 네 번째 아내 마흐피라트가 낫선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한 카밀이 그녀의 손가락 두 개를 잘라버린다. 질투심에 휩싸인 세 번째 아내 로비야는 임신한 파리다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카밀의 곁을 떠나게 된다. 긴장감은 파리다의 옛 연인이 나타나면서 정점을 찍는다.

혁명군이 승기를 잡고 쳐들어오자 카밀은 남은 세 부인을 안전한 곳으로 떠나보낸다. 그리고 산속 동굴에 가둬둔 본처를 집으로 데려와 이

전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나, 세 번째 아내 로비야가 혁명군과 함께 나타나 카밀을 총으로 쏘 죽이면서

카밀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전통적인 세계는 마지막을 맞게 된다. 로비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는데, 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로비야가 구세대와 겨울의 상징인 늙은 카밀과 결별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이 영화는 1920년대를 살아간 카밀과 부인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 소련에 의해 변화해야만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운명을 그리고 있다.

갓 구운 빵 Hot Bread (우미드 함다모프/ 2018년/ 87분)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던 줄피야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도시로 떠나고 없고, 엄마 대신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엄마, 도시, 그리고 엄마와 연결해주는 휴대폰으로 가득 차 있다. 줄피야는 남편도 없이 시골에 처박혀 매일 빵을 구워 파는 숙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도시로 가지 않느냐는 줄피야의 질문에 그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져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할 뿐이다.

어느 날 줄피야는 죽었다던 삼촌이 러시아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잘살고 있고, 자신의 엄마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도시로 가서 엄마를 만났지만, 엄마의 무덤덤한 반응에 실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알게 된

줄피야는 차츰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성숙해진다. 그리고 여성의 삶을 상징하는 빵 반죽을 만들고 집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줄피야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시골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을 이어갈 남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여자들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텡기즈 Tengiz (만수르 압두칼리코프/ 2020년/ 83분)



영화의 첫 장면은 모래사장 위에 덩그러니 버려진 낡은 배를 통해 사라져가는 바다(아랄해)를 보여준다. ‘텡기즈’는 ‘바다’라는 뜻의 남자 이름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텡기즈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다.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겪은 여자 주인공이 강인한 의지력을 발휘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이다.

텡기즈는 임신을 강요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바람을 피우다 들킨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몰염치한이다. 임신한 텡기즈는 남편과 기차역에서 만나 병원에 가기로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내연녀와 함께 있는 남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아이도 잃고 불

구가 된다. 결국 친정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의 도움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은 그녀는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해 봉제공장을 세우고 성공으로 이끈다. 그리고 마을과 주변 지역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아내를 찾아온 남편에게 “텅기즈는 없어”라는 소리치는 주인공의 절규와 사라져가는 ‘텅기즈(아랄해)’가 서로 얽혀 긴 여운을 남긴다. 영화의 끝 장면은 발전된 아랄해 주변의 모습으로 텅기즈라는 이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무채색 꿈 Colorless Dreams (아유 샤코비티노프/ 2020년/ 75분)



카슈미라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7년 동안 아랍 국가의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고향인 타쉬켄트로 돌아온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하고 외국으로 떠난 후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가족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런 결혼만으로도 손가락질 받을 행동이었건만,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돌아온 카슈미라는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동생의 부인은 심지어 자기 딸이 카슈미라 같은 여자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냐며 친절로 간다. 형제들마저 멀리하니 가족에게서 이미 그녀가 있을 공간은 없어진 것이다. 그녀의 방은 창고로 사용된 지 오래다. 그녀의 공간이 없다는 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전과자인 그녀에게는 쉽지 않다. 가족의 냉대와 멸시, 그리고 감옥에서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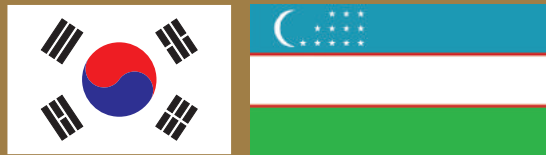
까지 그녀에게는 모두 끔찍한 “무채색 꿈”으로 인식된다.

카슈미라는 다른 도시로 떠나 봉제공장에 취직한다. 얼마 후 그녀가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아버지와 남동생이 찾아와 용서를 빌면서 영화는 따뜻하게 끝이 난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와 화해의 공간이 가족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 자리를 잡은 곳이다. 과연 카슈미르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홍상우 교수의 영화로 보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한국외대 노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러시아국립영화대학(VGIK) 영화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우즈베키스탄 국영영화사 ‘우즈베크필름’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저서로는 『영화읽기의 즐거움』, 『알렉산드르 소쿠로프』, 『세계영화기행』, 『TV 드라마의 이해』 등이 있다. [강연보기 VOD <http://www.censcakmu.org> 3월 21일(월)~25일(금)]



이 프로젝트는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조성사업”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금으로 실시됩니다.

Special thanks for the sponsorship of the Uzbekistan Embassy in Korea
and Korea Foundation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ACADEMIA VIA SERICA

<http://censcakmu.org> / E-mail: censca@kmu.ac.kr / Tel: 053-580-8998